

第19回 全國圖書館大會 內容

日 時：1981年 11月 12日

場 所：제주도 학생회관

主 管：濟州地區協議會

參席人員：153名

登 錄

11月 12日 13時 30分부터 14時까지
大會場인 제주학생회관에서 登錄하다.

開會式

14時부터 全國에서 모인 會員들과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多數 參席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開會式 順序는 國民儀禮에 이어서 李鳳順會長의 開會辭, 교육감의 祝辭, 오윤겸 제주교육대학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特別講演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제주대학교 현용준 교수의 特別강연이 있었다.

特別講演의 主題는 “濟州地域의 民俗”
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주지구의 특수한
민속과 전설, 등 아름답고 유서깊은 제
주도의 자랑거리에 대하여 재미있고 유
익한 새로운 내용을 상세히 紹介하였다.

基調演說

主題：「平生教育과 圖書館」

演士：金世翊교수(梨大)

金교수는 基調演說에서 “정보의 폭발
시대에 사는 오늘의 인간들에게는 학교
교육의 한계성을 실감하게 되며 국가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애에 걸
친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
의 교육이 가장 좋고 효과적인 시설은
도서관이란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라
고 평생 교육과 도서관의 필연적 관련
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의 현황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언급
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신
을 밝혔다.

主題發表 및 討論

〈第1主題〉

「平生教育과 公共圖書館」

鄭駢謨 교수(中央大)

〈第2主題〉

「平生教育과 大學圖書館」

申鉉德 교수(경희 대水原캠퍼스)

〈第3主題〉

「平生教育과 學校圖書館」

崔星洛 교수(서울教育大)

(發表者인 崔교수가 大會 前日에
갑작스런 신병으로 부득이 第3主題
의 發表가 중단되었음)

綜合討論

오후 4시 40분부터 30분간 주제발표
에 대한 綜合討論이 있었는 바, 綜合討
論은 鄭駢謨교수가 司會를 맡고, 각 주
제발표자가 內容 답변을 위해 參席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綜合討論에서는 平生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의 역할과 圖書館人들의 進路問
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의견교환이 있